

가정예배 안내서

3

1994

충현의 만나

이사야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제목

1. 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신성종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총현의 만나

1994년 3월

『총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총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이사야서 서론

이사야서의 히브리어 표제는 주인공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예사야후, 또는 그 단축형인 예사야로 붙여졌다. 이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아사'와 여호와를 뜻하는 '야후' 또는 '야'가 결합된 것으로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책 이름처럼 이사야서의 주제는 '심판과 은혜를 통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며, 본 서의 기록 목적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사야의 사역은 유다왕 웃시야(BC 767-739) 통치 말기부터 시작하여 요담(BC 731-715)의 시대를 거쳐서 히스기야(BC 715-686)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이사야의 예언 중에는 이사야 자신의 활동 당시에 있었던 일(1-39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사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 관한 이야기들(40-66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 사상, 메시아 사상, 하나님의 거룩성, 여호와의 고난 받는 종과 같은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들이 다루어져 있다. 특히 본 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을 보면 이사야가 마치 신약의 선지자처럼 보일 정도로 그 예언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 이사야서의 주요 낱말은 '구원'이며 핵심구절은 9장 6절과 53장 6절이라고 할 수 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뇨 ……』(44:10)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 식민치하에서 벗어나려고 자주독립을 외쳤던 날입니다. 독립을 부르짖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를 살리는 맥박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사회가 변화되고 서서히 독립의식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영향을 끼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 백성들이 우상의 유혹을 경계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대민족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10, 11절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망하게 됩니다.

본문은 우상숭배자들의 어리석음과 모순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삼일운동 당시 성도들처럼 사회를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살아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땅끝의 모든 민족들이 호산나 주를 찬양하는 날을 바라보며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교회되게 하소서.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44:23)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21,22절). 그리고 천지가 이러한 이사야의 선언에 기쁨을 같이 나누도록 초청되었습니다(23절). 마지막으로 멋진 시가 그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관하여 점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고, 이스라엘이 고국에 되돌아 가게 되며,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하십니다(24-28절).

여기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감격하여 외친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의 핵심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깨끗하게 도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의 무익함과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먼저 기억하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한 마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순간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회개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때에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기도 /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김창인 월로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은 땅과 같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지도록 역사하소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45:3)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그의 종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이 알지도 못한 순간에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느닷내 왕에게 죽임을 당한 지 100년 후에 태어나 주전 549-529년까지 20년간 바사를 다스린 왕입니다. 고레스는 메대의 속국인 안산이라는 작은 나라의 감비세스 왕의 아들로서 주전 549년에 왕이 되자 종주국인 메대를 격파하고 바사를 건설하였고 정복을 거듭하여 545년까지는 전 소아시아를 수중에 넣었던 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주셨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기름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습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3절). 둘째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4절). 셋째로, 세상에 여호와와 능력을 나타내고 알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6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배나 더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45:15)

본문에서 우리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 속에 역사하시며, 친히 주관하시되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밀히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숨으시는 일도 있고(시 88:14;에 3:43,44), 성도를 사랑하셔서 숨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어 역사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숨어서 역사하십니다(14절). 둘째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숨어 역사하십니다(16절). 셋째는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숨어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은밀히 능력을 나타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란하게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일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즉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모르는 곳에 숨어서 계시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때를 따라 일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숨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를 은밀히 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 기도 / 은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소서. 충현의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갈보리언덕까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정병들이 되게 하소서.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양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45:22)

나다니엘 호돈이 쓴 단편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보여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언젠가는 자신도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점차적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보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추어 살겠다는 편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무지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약한 존재임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그것들을 보면서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온통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 생각없이 물들어 가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의식적으로 따라 가지는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생활에 물들었듯이 이 세상의 것을 보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기도 / 세상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비록 힘이 들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롭고 강건함을 주소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46:9)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기워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물건(우상)과 비교하도록 하였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의에서 떠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으면서도 계속하여 불평을 하였던 조상들과 같이 그들도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려울 때 입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동물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척박해진 나의 마음에 새로운 활기를 주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바다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합시다.

▶ 기도 /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모든 당회원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47:1)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한 평생을 열심과 성실로 일해서 좋은 직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만의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의 힘을 대항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의 병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스스로를 사치와 방탕에 빠지게 하였고, 약한 자를 압제하였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절대로 불행이 찾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영원히 역사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종말이 온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으며 자기들 외에는 절대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특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어 그들이 앉아 있는 보좌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아리따움을 꺾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게 하시며, 흑암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직위를 얻으려고 하는 데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지만 일단 그 직위를 얻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얻은 자리에서 얼마나 겸손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빛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에게 주신 모든 특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알게 하사 잠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영광의 자리를 자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직원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48:10)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아픔과 슬픔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고통의 문제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현실로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 이것은 바로 고난의 상황,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벨론 포로의 현장 속에 있는 힘겨운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풀무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일까요?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을 새롭게 고백’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점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난은 너희의 유익과 승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연단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풀무는 선택의 자리, 은총의 자리, 승리의 자리임을 새롭게 고백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고난의 현장을 은혜와 승리, 치유와 영생의 자리로 바꿀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풀무, 바로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며, 거기가 우리 믿음의 삶이 재창조되는 산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의 풀무를 짊어지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교회의 일꾼들이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실함으로 일하게 하소서.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48:17)

오늘의 본문은 40장에서 47장까지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고난의 풀무를 통하여 그들의 삶에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14절)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참조 요 6:48-51; 고전 10:4).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버리고 떠나야 할 바벨론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어 나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맡은 바 모든 일에 책임있게 일하게 하소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यो 내 영광을 나타낼 ……』(49:3)

하나님께서서는 구원 사역을 위하여 '종'을 세우십니다. 그 종을 모태에서 부터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복중에서 그의 이름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마 1:21). 또한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마 7:29). 이 종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황무한 땅을 회복시키시며, 잡혀 있던 자들과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을 구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분명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감격적인 영광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그 이름 선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영광의 몸을 버리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외형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그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자체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 20:28).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종의 신분을 가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는 주님이 높아져야 하고, 그 주님 때문에 이 옷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예수님의 주님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섬김의 능력을 주소서.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49: 15)

49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 메시야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해 종말론적 관점에서 묘사한 후(1-12절) 이러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드릴 찬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13절).

이제 본문에서는 거듭되는 소망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담하고 있는(14절) 이스라엘을 위하여 포로 귀환 사실과 이방의 회심에 대해서 언급하며 구원의 확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14-16절), 이스라엘의 귀환과 정복자의 철수(17-19절), 민족 구성원의 증대(20,21절), 이방의 회심과 굴복(22,23절), 구원의 확신 반복(24-26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도 인간이라는 한계성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긴박한 환경, 어쩔 수 없는 환경은 닥쳐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왕하 6:28).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은 영원한 것임을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 기도 / 주여 이 한 날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학생들이 변화되게 하소서.

『.....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50:6)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전반부(1-3절)와 종의 순종을 다루는 후반부(4-11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기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박함과 완고함은 결국 심판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48:4). 반면에 여호와와 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등에 채찍을 맞고 당시 근동 지방에서의 최대 모욕이었던 침벨음까지 당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한 후 바로 이어서 종의 순종을 말함으로써 종의 순종이 곧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어떠한 분입니까? 먼저 종은 '학자'로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멸시와 천대를 감수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말입니다. 죄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 기도 / 주여 여전히 범죄하며 불순종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의 음성듣고 회개할 맘을 주소서. 각 교구 구역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 하소서.

『여호와와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51:9)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종의 순종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어조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소서 깨소서”라는 구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게을리 했을 때 그들로부터 멀어져 계심을 가리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 절실히 간구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라합’은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애굽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용’ 역시 애굽 세력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한편 용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로서 원래는 하나님의 큰 적인 사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 하는 찬양의 노래로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종의 순종을 통해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마음 속의 탄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의 절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사야의 기도를 본받을 때 우리들의 기도가 단지 나 자신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주실 은혜를 찬송하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가 내 속에서 나오게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용사로 서게 하소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51:12)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매일 압제자들에게 학대와 위협과 고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본장(51장)의 앞부분에 연결된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벨론으로부터의 정치적인 구원까지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절대 멸망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요, 요새였고 부귀가 극에 달하며 전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분노의 큰 잔을 회수하셔서 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잔은 유다가 하나님께 받았던 징계의 잔이 아닌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이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경우 바벨론의 압제는 건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둘째로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끝없이 인내하시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겪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깊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 기도 /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부와 예배다부원들이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52:7)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은 택한 백성 유다를 한시라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를 통해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다는 사로잡힌 바벨론의 결박을 끊고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압박과 고통 속에 처한 유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무서운 면이 있는가 하면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 속에 주어진 이사야 선지자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와 같이 영원한 멸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코자 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갔다는 것이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되고 기쁜 소식도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는 결코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전도자가 필요하며 이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시간 항상 깨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깨어서 전 세계의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53:6)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의 때, 유다의 회복과 영광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축복의 배후에는 고난의 메시아의 아픔과 고통이 수반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픔은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는 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절고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상하고 찢기셨으며 급기야는 사망과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양에게 인수한 후 잡아 피를 뿌렸습니다. 또한 광야로 보내 죽게 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고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속죄에 대한 깊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며, 동시에 죄를 깊이 회개하며 참된 신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오늘도 십자가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열심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서면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이슬람의 세력 뒤에 숨어 있는 어둠의 영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물러가게 하소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54:8)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방민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뒤 다시 자비와 긍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자비로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하고 범죄한 그의 아내 고멜을 데려오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후에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삼아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언약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셔서 거룩함에 참여시키시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때 범죄치 않게 될 것이며 원망치 않을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사랑과 긍휼의 주님께 순종하며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통하여 독일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여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55:1)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약속에 이어서 세계 만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자들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러한 구원 초청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며 누구든지 차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들으며 죄악된 것에서 돌아서서 믿고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청의 시기는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라고 말했던 것처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을 통해 이집트 한인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서 두려움과 어둠의 영에 갇힌 그들에게 참 자유를 알게 하며, 애굽복음주의신학교 사역을 도우시고, 선교 차량이 속히 구입될 수 있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56:8)

앞장에서는 포로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의가 곧 나타날 것을 선포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장의 후반부에는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의의 축복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개종자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된 불구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과 불구자들로서 여호와와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와 종이 되어 안식일과 언약을 굳게 지키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들을 기뻐하시겠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열납하여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4)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케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이방인으로 남아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을 도우시고 성지연구소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57:1)

세상이 부패하고 어지러우면 의인이 살기 힘듭니다. 경건한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이 차라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합니다. 죽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산재한 악들은 의인을 좌절시켰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의인들은 좌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의인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더 큰 불행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죽음은 장차 다가올 더 큰 재앙에 대한 경고요 징조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탄식합니다. 신자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떠나 이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은 슬픔이라기 보다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떠합니까? 의인들과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마법이나 종교적인 매춘을 일삼습니다. 성전의 창기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숲 속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신들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의인의 죽음을 비웃습니다. 자신들이 받을 진노를 알지 못합니다.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가 복됩니다. 경건하게 살다가 죽는 자는 더욱 복됩니다. 그러나 악하게 사는 자는 삶 자체가 진노요 형벌입니다.

▶ 기도 /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가 안식년을 통해 영육이 새롭게 재충전되고 언어에 진보가 있게 하소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57:15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겸비하여 회개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돋우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14절)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일찌기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사 6장). 하나님은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높고 위엄찬 하나님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꾸짖고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꾸중과 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방종하고 탐욕에 빠지며 채찍으로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나 회개한 지금은 용서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료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벧전 5:5). 하루의 삶을 겸허하게 돌아봅시다. 회개할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을 누립니다.

▶ 기도 / 항상 자신을 살피 겸손하게 통회자복하여 주의 용서와 위로를 누리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의 내륙 선교 준비를 도우시고 심천 형제들의 계속적인 성장이 있게 하소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58:6)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선과 형식을 싫어하십니다. 외모보다 내면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유대인들은 금식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식적인 금식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오락을 즐겼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인데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굶은 배와 재를 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참다운 금식은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욥 2:12,13). 예수님도 금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띠거나 얼굴을 흉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정결하게 하여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마 16:16-18).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을 깨는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집없이 유리하는 가난한 자들을 집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를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골육 곧 친척을 외면치 않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사 58:8,9). 바른 금식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 기도 /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하소서. 김창수 목사의 사역을 도우시고 수레남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59:12)

본문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으며,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으로 황폐해지고, 개인과 가정 모두 곤경에 처해 있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그 하소연을 듣지 못하셔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의 모습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죄악된 행위는 흑암 속에 사는 생활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민족의 죄를 꺼안고 기도합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12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계의 채찍이 올 때, 또는 환경의 풍랑이 밀려올 때, 나아가 매일 매일 생활하면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그 어떤 잘못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즉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항상 겸손하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유병세 선교사를 통해 일본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59:20)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 오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화해를 요청하시고, 사랑으로 백성들을 감싸 안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죄악된 세상의 모습은 15절 말씀대로 성실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악을 떠나는 자(의인)가 탈취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공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불의한 자가 오히려 득세하는 시대가 바로 죄악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죄악 백성을 구원하시려 구속자를 보내시지만, 그 잘못된 죄악만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십니다”(18절). 구속자를 보내셔서 먼저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신(영)과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후에 계속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영원토록 우리 후손까지 사랑으로 다스리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기성, 박정아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언어어의 빠른 진보와 교회와의 사역이 잘 이루어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60:1)

본문은 구속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이스라엘 미래의 영광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한 영광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요일 1:5).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내려옵니다(약 1:17). 본문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백성이 돌아오며, 모든 악의 세력은 굴복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소망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구체적인 증거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이 땅에 최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왕으로 다스리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과 소유 그리고 생애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들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9절)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김형선, 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의 사역을 친히 섭리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60:21-22)

하나님은 공의와 진노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치시지만 그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감싸 안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이사야는 날마다 범죄가 더해지고 쇠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에게, 유다가 망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을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10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유효하며 본문 가운데 아직까지 성취되지 못한 부분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위해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는 성벽과 성문과 대로가 모두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광채가 일월성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제시록 21장).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 중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우리를 위해 남겨두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행복의 연속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기대하며 하루 하루 승리하며 삽시다.

▶ 기도 /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일본)가 오사까영광교회와의 협력선교를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사업이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게 하소서.

⁷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 (19:38)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의 민족에게 나아오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나귀를 타시고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세상 왕들이 타는 말을 타지 않고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섬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막 10:45). 그러므로 연약하고 가장 겸손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영접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마치 해변가에 밀려오는 파도와 같았고,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심령속에 입성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만일 이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대로 거리에 버려져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도 초대교회 교인들의 찬양의 소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사회에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할 자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기도 /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고은첸 평신도 선교사(케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막 11:17)

예수님 당시 세상의 온갖 부패된 일들이 성전 안에서 그대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좋은 위치를 잡아서 장사를 할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의분을 발하셨습니다. 찬양을 받아야 할 주의 이름이 상품으로 변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부패된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할 곳이 성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있던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내놓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1:24).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 첫째날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막 11:25)

▶ 기도 /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위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소서. 북한 선교의 문이 구체적으로 열리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축복하소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막 12:30)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먼저란 엄밀한 의미에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주간 둘째날이 되는 오늘 서기관 중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계명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인격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 전체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사랑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사랑을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일 수도, 또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합시다(요 13:34).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특히 이 민족을 안아주시사 전쟁과 내란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나라, 구제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삼아주소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내 장사를 ……』(막 14:8)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해칠 계락을 꾸밈니다. 그때에 주님께서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가난한 서민에 불과했던 마리아가 일반 노동자의 일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값의 향유를 부은 것은 전폭적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온 세상이 주를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를 따르겠다는 신앙고백의 표시로서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을 본 자들이 이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주님은 여인에 대한 비난을 중단시키고 신앙의 우선 순위를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등의 구제에 힘쓰셨고 제자들에게도 깊이 당부하셨습니다(마 25:31-40). 그러나 이제 그보다도 더 중하고 긴급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음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준비로 마리아의 향유가 부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보다 생명의 구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적 헌신의 결단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생명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을 통해 복음사에 기념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기도 / 복음을 위해 생명드려 헌신하게 하옵소서.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게 하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26:39)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드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혹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의 시간은 다 가고 신성에 의한 전적인 순복만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 함께 힘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맹세까지 했지만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영적 눈을 뜨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 기도 /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3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4월에도 동행하셔서 순종의 꽃을 피우게 하소서.

구역공과

구역예배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 3) 구역공과..... 인도자
- 4) 기 도 인도자
- 5)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9 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

· 성경본문 : 마가복음 4:1-20

· 중심요절 :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막 4:11)

· 찬 송 : 233장, 399장

1. 서 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즉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린 자에게만 보여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한 자와 같고,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아도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할 때 비유로 하신 것은 거듭나지 못한 외인들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듭난 자들에게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주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주셔서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예수님은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데는 두 가지 상반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다수의 청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오래동안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때로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해석을 하여주셨습니다. 오늘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련의 비유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13-20절에는 그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성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 나라는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환란과 고난을 당하며, 사탄의 방해공작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엔 승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하지만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고난 후에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3. 본문관찰 및 토의

1) 씨뿌리는 자가 뿌릴새 더러는 어느 곳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습니까(4절)?

새들이 와서 씨를 즉시 먹어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말로 써보십시오.

2) 씨를 뿌릴 때에 삼십배와 육십배와 백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것은 씨가 어느 곳에 뿌려졌기 때문입니까?

이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뜻하는지를 14-1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록하십시오.

3)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말로 기록하십시오.

왜 외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기록해 보십시오.

4) 돌발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무엇이 일어날 때에 넘어집니까(16,17 절)?

4. 삶의 적용

1)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질 때 나는 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길가인가, 돌발인가, 가시떨기밭인가, 좋은 땅인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2) 나는 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연구해 보십시오.

3)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내가 간직한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방법을 찾아 봅시다.

5. 결 론

예수님은 왜 천국을 씨앗에 비유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결실을 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삶 속에 적용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림으로 능력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 생활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10 과

예수의 증인

· 성경본문 : 사도행전 3:11-26

· 중심요절 :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행 3:15)

· 찬 송 : 102장, 268장

1. 서 론

예수님의 12사도들과 그의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12사도들은 이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자들이며,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들입니다. 무슨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증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확고하게 증명해줄 증인이 불확실 하면 그 사실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배우고 본 사실에 대하여 정직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실을 설파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사도행전 2장에는 약속하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충만한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한 번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앓은뱅이 거지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삼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생명의 주로 삼으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3. 본문관찰 및 토의

1)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앓은뱅이를 고치자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며 이 일을 기이히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 라고 선포했는지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12절).

2) 너희가 기록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 증인의 자격은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증인은 본 사실만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증거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체험한 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증인의 자격 조건이 되는가를 점검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요약하여 기록하고 나뉘보십시오.

3)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의 날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4. 삶의 적용

1)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 자기의 명예와 영화를 위하여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목시키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는 시대 속에서 나는 주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함께 나눠 보십시오.

2) 베드로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남들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구원의 간증문을 작성하고 복음을 남들에게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합시다.

3) 예수님을 일상생활에서 나타내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으면 회개하고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간구합니다(구역모임에 참석시킬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함).

5. 결 론

먼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생생한 체험이 있어야 담대하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소개하고, 증언노릇을 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마음의 소원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척, 친구, 이웃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구역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 11 과

회당장의 딸

- 성경본문 : 마가복음 5:35-43
- 중심요절 :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막 5:41)
- 찬 송 : 424장, 94장

1. 서 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료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약과 의술을 통한 병원이고, 또 다른 방법은 기도를 통한 직접적인 치유의 사역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약과 의술을 통한 치료만을 주장하고 기도를 통한 치유사역을 무시하고 무속신앙의 행위로 규정합니다. 반면에 지나친 신비주의자들은 약과 의술을 통한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영역을 무시하고 오직 영적인 기도만을 통한 치유 사역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치유 사역의 양면성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약과 의술을 통한 병고침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규정하고 있으며(딤후 5:23 ; 약 5:14), 또한 기도를 통한 각종 병자들과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약 5:15,16).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도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마 10:1 ; 막 16:15-18).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놀라운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며, 수많은 역사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의 주사역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병원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며, 사람의 영혼을 회개시켜 구원시키

는 구원의 방주역할임을 알아야 합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마 4:23). 이 치유사역은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표적이 되며(마 11:3-6 ; 눅 4:18),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한 사역의 절정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한 고을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열두 살 먹은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속히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을 가시는 도중 열두 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시게 되니 시간이 지체 되었고 뒤이어 온 전갈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갈에 개의치 않으시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셔서 말씀으로 소녀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3. 본문관찰 및 토의

1) 열두 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6절)

* 믿음과 두려움은 역학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의 안개는 사라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당한 사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안개에 싸여 근심 걱정과 노예가 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며,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나눠보십시오.

2)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흰화합과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까(39절)?

3)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예수께서 저희를 내어 보내신 후에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41절)?

4. 삶의 적용

1) 내 앞에 갑자기 닥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하는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이겨내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함께 나눠보십시오.

2) 교만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의 무너져 가는 믿음, 기도생활, 교제의 관계를 일으켜 세우도록 기도합니다.

3) 교우 중에 병들거나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뜨겁게 합심기도를 드립니다.

5. 결 론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연인과 달라야 합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건강이나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환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은 죽음을 명하여 떠나게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산 신앙인이 됩시다.

제 12 과

목자 없는 양

- 성경본문 : 마가복음 6:30-44
- 중심요절 :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막 6:34)
- 찬 송 : 86장, 82장

1. 서 론

양은 순진하고 무능력하여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이는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도 없고, 스스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를 찾을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반드시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인도해주는 목자를 떠난 양은 적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참 평안과 안위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연약한 양으로 비유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연약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탄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스스로 생명의 떡과 영생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선한 목자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꿀을 먹지 않으면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목자없이 헤매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현실도 당시의 유대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풍요를 자랑하지만 심령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고,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참 목자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정부와 해롯,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의 눈에는 모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 목자라고 세움받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나 안위함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심각한 착취로 인하여 거의 탈진 상태였고 것처럼 지친 백성들이 믿고 따를 지도자는 어느 곳을 찾아 보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고, 고통스러운 삶에 찌들린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유일한 위로였고 사막의 생수였습니다. 끼니 때도 잇은 채 설교를 청종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은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임을 잘 보여줍니다.

3. 본문관찰 및 토의

1) 예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큰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3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2) 날이 저물어 가매 예수께서는 배고픈 큰 무리들을 먹이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기록해 보십시오.(37절).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기록하고 나눠 보십시오.

3)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후에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까(43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함께 나누십시오.

4. 삶의 적용

1) 우리 구역이 시급히 도와야 할 연약한 이웃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의논해보십시오.

2) 주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불행한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내 주변에 돌봐줄 이웃이 있으면 구역별로 힘써 돕고 섬기며,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3) 내 주변에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역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구역배가에 전심전력을 다합시다.

5. 결 론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목자없이 헤매이는 불쌍한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속히 하나님 사랑의 품 속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은 각종 이기주의와 향락주의로 말미암아 불쌍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각 구역이 합심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다 같 이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